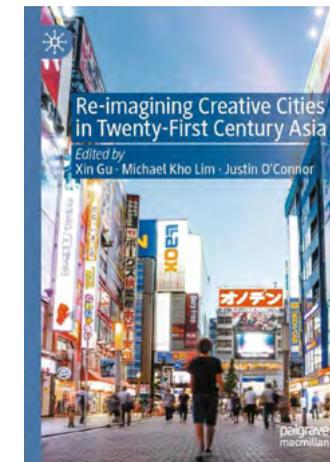


서 평

## 21세기 아시아의 창의도시 재구상

자이드 민티\*



Edited by Xin Gu, Michael Kho Lim and Justin O'Connor.

London: Palgrave Macmillan, 2020. 325 pages.

ISBN: 9783030462901

지역 문화 거버넌스는 비교적 최근의 연구 분야로서, 최초로 영미권 사례들을 조명한 저술들이 1990년대부터 나오기 시작했다. 서양 이외 지역의 도시들에 대한 문화와 정책에 관한 저술은 그보다 훨씬 더 최근에 이루어졌다. 그러므로 2020년 팰그레브 맥밀란(Palgrave Macmillan)이 출판한 21세기 아시아의 창의도시

\* Zayd MINTY is Director of Creative City South. He is currently developing a national research and advocacy initiative on urban cultural governance in South Africa. He has an interest in culture and its implications for diversity, governance, infrastructure and sustainable development in global south cities.

재구상(Re-Imagining Creative Cities in Twenty-First Century Asia)은 특히 동아시아와 동남아시아에 초점을 맞추어 주문 제작된 저술이라는 점에서 반가운 책이다. 이 책은 중국, 호주, 홍콩, 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지역으로부터 28명의 저자들의 에세이와 인터뷰를 모은 것이다.

이 책은 5개 주요 부분들로 구성되었다: 아시아의 창의도시 개념화; 창의도시에 대한 저항; 창의도시와 창의산업; 창의도시 운영; 그리고 아시아의 문화 정책 수립에 대한 비판적 성찰. 앞의 네 장은 독창적인 연구인 반면, 마지막장은 대부분 창의 도시 전략과 관련된 실무자들의 경험에 대한 인터뷰로 구성되어 있다.

편집자들은 국제적으로 창의 도시를 이해하기 위한 수많은 방식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아시아에서 창의 도시 정책 수립에 있어 지배적인 접근 방식은 신자유주의 정부의 개념과 연결되어 매우 경제 중심적이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소비 중심의 접근방식은 국가 서비스와 자원의 민영화가 증가되고, 정부는 모든 분야에서 더욱 더 기업가처럼 변모되고 있는 것과 연관이 있다. 창의 도시 형성을 위한 경제 중심 접근방식은 종종 창의 산업, 문화 관광, 도시 재생과 관련된 문화, 주요 이벤트, 그리고 문화의 브랜드화를 강조해 왔다. 그것은 성장과 투자를 증가시키기 위한 매우 매력적인 방법이었다. 이 접근 방식은 또한 리처드 플로리다(Richard Florida)의 영향과도 밀접하게 관련되는데, 그는 많은 도시들 가운데 빈번하게 사용되는 "창의 계급(Creative Class)" 개념과 측정 지표를 강조하였다. 이러한 경제 중심 접근 방식은 많은 아시아 도시들에게도 인기를 얻었는데, 그들은 도시를 재배치하거나 재구성하는 데에 문화를 활용하기 위해 그러한 아이디어를 채택했다.

한편, 이 책의 저자들을 포함하여 지역 문화 거버넌스에 대해 연구하는 많은 이론가들은 최근 수년간의 연구를 통해 이러한 과도한 경제 중심의 접근 방식을 비판해왔다. 왜냐하면이 접근이 세계적 동일성을 지향하는 경향과 함께 중산층의 이익에 특권을 주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을 인식했기 때문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러한 실행으로 인해 불평등, 상대적 빈곤층의 이주 및 사회 문제 등의 풀어야 할 과제들이 불가피하게 증가했다는 것이다. 이 책의 여러 논문에서 제기된 비판들도 도시 정책에 있어 지역정부의 문화 사용의 결과로 불평등이 초래되었다는 것을 확인시켜 준다.

아시아 도시들이 창의 도시를 도시 정책 기제로 사용하는 것을 두고 여러 명의 저자들은 "빠른(fast)" 또는 "복사 정책(Xerox policy)" 모드라고 표현한다(제이미 펙(Jamie Peck)의 학술연구에 따름). 이는 충분한 자기성찰이나 현지 조건에 맞는 면밀한 적용 없이 서구 모델에 기반한 접근 방식을 채택하는 것을 의미한다. 종종 지역적 맥락, 역사 및 가치가 무시된 채 사회, 문화 또는 환경적 측면에서 문화의 잠재적인 힘이 탈정치화 되는 경우가 있다. 많은 저자들은 아시아의 도시들이 현대화를 추구하면서 서구의 도시들을 주로 모방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여러 논문들이 보여주듯이, 이것은 문화를 다루는 데 있어 비현실적이고 도움이 되지 않는 관점이다. 그것은 구(Gu)가 지적하듯이(p.53) "서양의 문화적 지식, 문화적 가치, 그리고 삶의 방식이 타 지역 도시들보다 우위에 있다고 보는 맥락에서" 아시아 도시들은 "끊임없는 따라잡기(perpetual catching up)" 모드에 가두는 위협에 처하게 만들 것이다. 대신, 아시아의 맥락, 역사, 가치, 지혜, 지식을 바탕으로 하는 좀 더 지역적인 도시 문화 접근법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 책의 여러 논문에서 보여지는 창의 도시 구현을 위한 보다 상향식(bottom-up) 접근 방식은 매우 유용하다.

다양한 저자들은 아시아 도시들이 문화를 잘 활용한 것으로 보이는 긍정적인 사례도 많지만, 특정 장소와 관련된 보다 광범위한 문화의 가치가 무시되고 부정적인 영향들이 간과되는 경우도 많다는 것을 보여준다. 몇몇 저자들은 창의 도시에 대해 접근하는 또 다른 방식은 지역 차원의 문화가 어떻게 인간의 발전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지를 인식하는 것이라고 강조한다. 그들이 말하는 문화는 지역의 지식과 역사에 내재된 그 잠재력과 인간의 창의성을 바탕으로, 공공

생활에서 커뮤니티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중요하다. 이는 보다 지속 가능한 도시로의 전환을 돕는다. 지역 이야기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말레이시아 조지타운의 사례와 대만 타이난 시의 예를 포함하여 문화가 어떻게 아래에서 위로 올라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유용한 사례들이 몇 가지 있다. 이러한 흥미로운 사례들은 종종 네트워크 활동을 통한 대안적인 실행방식을 제시한다. 마찬가지로, 인도네시아 반둥과 태국 치앙마이의 사례는 지역 네트워크에 대응하는 새로운 형태의 거버넌스가 어떻게 구상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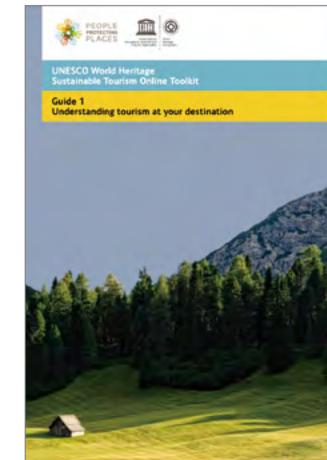
마지막으로, 많은 장들이 문화 관련 정책 업무를 재편하는 데 있어서 기술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이것은 문화가 양날의 검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감시를 통한 통제의 형태로서 문화의 역할을 제기한다는 점에서 특히 흥미롭다.

이 책은 아시아의 상황을 보여주는 시의적절한 책이며, 서구 이외의 지역에서는 많이 늦어졌던 지역 문화 거버넌스에 대한 자기 성찰의 시작을 알리고 있다. 보완해야 할 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이 책은 아시아 지역 전체를 반영하고 있지는 않으며, 일부 국가의 사례들이 다른 나라들에 비해 편중되어 있다. 흥미롭게도, 단일 도시나 지역에만 초점을 둔 비교 논문이 거의 없다. 게다가 이 책에는 매우 이질적인 조건에서의 자료들을 일반화시키고 비교의 기초자료로 이용하는 것이 당연시되고 있다. 몇몇 글들은 또한 연구 지역을 홍보하는 것으로 변환되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이 책은 동양에서 도시정책으로 문화 활용이 어떻게 구상되는지를 이해하도록 해주는 훌륭한 초보서이다. 지구상의 이 쪽 지역에서의 성장 추세를 탐구하는 것은 매우 필요한 작업이다.

## 서 평

### 유네스코 세계유산 지속가능한 관광 교육자료 리뷰

정진성\*



By UNESCO. Paris: UNESCO, 2018.

(Available online: <http://whc.unesco.org/sustainabletourismtoolkit>).

영화 『인디애나 존스-최후의 성전』에서 고고학자인 인디애나 존스 박사(해리슨 포드 분)는 예수가 최후의 만찬 때 사용한 것으로 알려진 술잔 '성배(Holy Grail)'를 찾기 위해 중동 오지의 고대 신전을 찾아간다. 좌우의 붉은 절벽을 사이로 1킬로

\* 정진성은 유네스코한국위원회 문화팀 팀장, 성균관대학교 문화융합대학원 겸임교수로 재직 하고있다.